

“외부 유입을 막아라”...광주·전남 코로나 차단에 ‘안간힘’

국내 신규 확진자 첫 네 자릿수에 광주·전남 불안
골프·김장 등 시·도 경계 넘나드는 감염 잇따라
“언제 폭발할 지 예측불허...외지 이동·모임 자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네 자릿수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진정세에 접어들
던 광주·전남도 다시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지역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방역 당국은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성탄과 연말
연시를 맞아 지역 간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판
단, 외지 이동과 모임 자제를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연일 당부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8면)**

13일 광주·전남 시·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
로나19 누적 확진자는 광주가 800명, 전남이 479
명으로, 통틀어 1279명에 이른다. 이 중 88.97%
에 해당하는 1138명이 지역 내 감염 환자다.

광주는 전남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전
남은 6명이 추가됐다. 광주에서 하루 신규 확
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 7일(11

명) 이후 다섯 만이다.

지난달 7일부터 시작된 광주·전남 4차 유행
에서 눈여겨볼 대목 중 하나는 외부 유입으로,
지역 간 이동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 등으로 n차 감염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남 광주지역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이
나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2명을 빼고는 대부분
전남, 전북 등 지역간 이동이 주된 감염 루트로
확인되고 있다.

전북 480번 확진자의 경우 광주 모 교회 교
인으로 관련 확진자만 10명에 이르고 있다.

경기도 골프모임 관련 광주지역 확진자도 n
차 감염을 포함해 모두 16명으로 늘었다.

여수에서는 고3 수험생이 전북 군산 자택을
방문한 뒤 코로나에 감염돼 교내 전수조사 등
홍역을 치러야 했다.

전남 기준으로 광주시와 전남도의 신규 확
진자 수는 17개 시·도 중 광주가 10번째, 전남
이 15번째다. 신규 확진자 점유율 둘 다 1%대
로, 서울이나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영남권
과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하루 최고 35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11월을
지나 12월에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
데 출향인사가 많은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가
까운 영남권에서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자 시·
도 방역 당국은 외부 유입 차단이 4차 유행 종
식의 중요한 관건 중 하나라고 보고 타 외자유

입 방역에 행정력을 올리고 있다.

박항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특정장소에서
만 대거 발생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엔 외자유
입 등이 큰 위협요인”이라며 “수능에 이은 성
탄, 연말연시 등 인구가 많이 많은 시기에 겨울
철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이동과 모임 자제
가 최선책”이라고 밝혔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수도권과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되
고 있다”며 “타 지역 방문과 김장 가족모임 등
을 자제하고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과 주
기적 실내환경 환기 등 생활 방역수칙을 준수
해달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영암 오리농장 2곳 또 고병원성 AI 확진

올해 국내 농가 12번째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
본)는 13일 전남 영암군 육용오리 농장 2곳에
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로서 올해 국내 농가에서의 발생은 총 12건
이 됐다.

중수본은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사육 가
금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10km 이
내 가금농장에는 30일간 이동 제한 및 AI 일제

검사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영암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는 7일간 이동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의 소독·방역 실패가
조금이라도 미흡할 경우 고병원성 AI 발생 위
험이 높은 엄중한 상황”이라며 “농장주는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출입 차량·사람
소독, 축사 출입 최소화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눈사람 만드는 가족들

서울 전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13일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공원을 찾은 가족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다.

한빛원전 3호기 발전 재개...주변압기 정비 완료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 지난 3
일 착수한 한빛3호기(100만kW급) 주변압기 정
비를 마치고 13일 오전 2시5분부터 발전을 재
개했다.

100% 정상 출력 도달은 14일 오전 10시경
로 예상하고 있다.

주변압기는 전기를 송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기
에서 생산한 전압을 송전 전압으로 승압
(22kV→345kV)하는 전력 설비다. A·B·C상 3
개로 구성됐으며 정비 대상은 C상이었다.

앞서 한빛본부는 한빛3호기의 주변압기 내
부를 냉각시켜 주는 절연유에 포함된 에틸렌

가스 등 유증가스 농도가 제작사에서 권고한
관리기준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안전 최우선
원전운영 원칙에 따라 주변압기 C상을 교체
하는 선제적 정비를 수행했다.

새로 교체한 주변압기 C상의 경우 유증가
스 농도를 철저히 감시하고, 기존 주변압기 C
상은 제작사와 함께 유증가스 발생 원인을 정
밀 조사할 예정이다.

한빛본부는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제적 조
치를 통한 안전 최우선 원전운영에 노력하고,
원전 운영 상황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
해 지역민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광주·전남 내일까지 최대 15cm 눈... “교통 안전 유의”

광주와 전남 서해안에 14일부터 이틀간 많
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13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14일부터 눈 구
름대가 지속적으로 발달하면서 전남 서해안에
최대 15cm의 많은 눈이 내리겠다.

14-15일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전남 서해안
5~15cm다. 광주와 전남 내륙은 2~7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부터 기온이 점
차 낮아지면서 추위가 시작되겠다.

눈이 내리는 기간 중 낮 최고기온은 0도 안
팍으로 크게 낮아져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바람도 강하게 불
면서 체감 온도는 9도 가량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기상청은 “찬 공기가 자리를 잡고 있어
오는 16일에도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쌓인 눈이 녹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행자 낙상, 차량 교통
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